

“예술이 자산이 되는 시대, 당신은 준비됐나요?”

GIST, ‘미술품의 감상과 투자’ 특별강연 개최

- 미술평론가 김윤섭(예술나눔 공익재단 아이프칠드런 이사장) 초청, 예술과 자산의 가치를 함께 읽는 특별한 시간... 6월 20일(금) 16시 오룡관 다목적홀, 선착순 50명 사전접수
-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고 투자로도 접근하는 방법까지... 예술의 다층적 매력 소개 예정

GIST 오룡아트홀 특별강연

미술품의 감상과 투자

아이프칠드런
이사장 **김윤섭**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미술사 박사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평가위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
이전희 컬렉션 감정위원 역임

2025. 6. 20. 금
16:00
오룡관 1층 다목적홀

아이프칠드런은 미래 세대의 일상적인 삶 속에 선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술 나눔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예술나눔 공익재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술이 지닌 감성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게 다양한 예술 및 교육적 인프라를 지원하여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참여방법 QR코드로 사전접수
참여인원 지스트 구성원 및 관심있는 지역민 누구나
신청기간 2025. 6. 12. 목 ~ 6. 19. 목
문의 **GIST** 오룡아트홀
062-715-2622 | yimeawon@gist.ac.kr

▲ 김윤섭 아이프칠드런 이사장 초청 특별강연 포스터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6월 20일(금) 오후 4시,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예술나눔 공익재단 ‘아이프칠드런*’ 김윤섭 이사장을 초청해 ‘미술품의 감상과 투자’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미술을 좋아하는 시민은 물론, 예술의 가치를 투자의 측면에서도 바라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예술 감상의 깊이 있는 즐거움부터 미술품이 지닌 경제적 가치까지 폭넓게 다루며,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고 투자로도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 **아이프칠드런(AiF children)**: 예술을 통한 나눔과 사회적 선순환을 실현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미술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자산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세대의 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예술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확대하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예술 교육, 기부 문화 조성, 전시 및 공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술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으로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강연을 맡은 김윤섭 이사장은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국립현대미술관 평가위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 이견희 컬렉션 감정위원 등을 역임한 미술평론가다.

이번 강연에서는 ‘미술은 감상의 대상이자, 시대와 시장을 읽는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예술을 새롭게 바라보는 동시에 비즈니스와 예술의 접점을 모색하는 사례와 통찰을 공유**한다.

예술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싶은 일반인, 미술 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 예술경영 분야의 종사자 등 **다양한 배경의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 참석은 포스터에 기재된 **QR 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룡아트홀(062-715-262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연이 열리는 오룡관은 GIST가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문화적 교류를 위해 **행사·회의·강연·세미나** 등을 위한 캠퍼스 내 다목적 건물이다.

오룡관 **1·2층 내벽에 조성한 전시공간인 오룡아트홀**은 2022년 12월 제1회 초대전을 시작으로 현재 전시 중인 ‘Insun Choi_회화의 고백’까지, 총 16회의 전시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나눔과 공공성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